

“지역 문화예술인 정주·활동여건 개선해야” 전주야호부모학교 개교 기념 특강

시,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박해란 작가 초청 온라인 진행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정주여건과 활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예술인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주시는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예술인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5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열린 첫 토론회에는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 연구실장과 정은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발제를 진행했다.

‘예술인 복지정책과 지역문화분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혜원 연구실장은 “예술인들은 적정대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일반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며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지역 간 역할 설정을 통한 지역 문화분권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희 대표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다수의 현장 예술인들에게 쓸모 없어 지려면 현재의 예술인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부터 병행돼야 한다”면서 “더 많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예술계 현장의 역할과 지원이 더욱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대환 이사장은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예술인 사회주택 등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한승진 전주시의원과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주성진 문화융어 대표, 최지민 삶(3)시대연구소장이 참여해 향후 개선돼야 할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는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4일에는 창작공간지원, 주거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등 7개 분야별 집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 5일에는 ‘문화예술인 지역정주여건 및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김남규 전주시의원과 서용선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 중심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이후 예술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시작한다.

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1 전주야호부모학교 개교 기념 온라인 명강사 특강을 한다. 전주야호부모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해 추진하는 부모교육 사업으로, 지난해 총 342회의 부모교육이 추진됐다.

17일에는 부모교육 명사인 박해란 작가가 참여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을 주제로 첫 특강을 연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명예이사장인 박 작가는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엄마 공부’, ‘오늘,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 등의 저자로 유명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http://naver.me/xAtZJKNw>)이나 전화(063-281-5029)로 신청하면 되며, 사전절문도 할 수 있다. 부모교육 웹페이지(www.jonju.go.kr/yaho)를 참고하면 된다.

이달에는 ▲초등학생 새내기 부모교육 ▲에비부모교육, 영유아 애착형성과 부모역할 ▲영유아 클로버부모교육, 영유아발달이해 교육 ▲다문화 학령기 부모교육, 이중언어부모-자녀상호작용 교육 등 10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창박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전주시, 복지시설·직장 등 야외무대서 공연·실내서 관람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치유 공연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요양원 등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직장 등에서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창박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시즌3 공연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선보이는 ‘창박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는 의료·요양원, 문화시설, 직장 등 각 건물 밖 야외무대에서 올라가는 버스킹 공연으로, 시민들은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관람하는 비대면 방식이 특징이다.

공연은 사전에 접수된 시설에서 약 12회에 걸쳐 회당 40~50분가량 ▲민요, 판소리 등 전통공연 ▲뮤

지컬, 성악 등 서양음악 ▲실내에서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조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진다.

시는 ‘창박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무기력했던 시민들의 마음도 치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잠시나마 시민들에게 위로와 여유가 전해져 지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생계를 위협받 정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자봉센터 업무협약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신현)와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3일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오는 6월 열리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 기간 동안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인적 자원과 자원봉사 활동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추진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초록정원사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정원문화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신현 위원장은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우수한 품종의 다양한 식물 소재가 중심이 된 정원 소재 박람회로 초록정원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인재육성재단, 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윤여용)이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021년도 1학기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과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20명 ▲도내 대학생 26명 ▲도의 대학생 17명 ▲특기 장학생 5명 등 총 68명이다. 1인당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과 특기생은 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3월 2일 기준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 중 ▲전주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전북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자격을 취득한 대학생 ▲도내 초·중·고 특기생 등이다.

성적 요건은 고등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신입생은 중학교 최종학년)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교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B+이상이면 된다. 특기생은 전통문화(국악), 미술, 음악 및 체육분야(단체종목 제외) 등 전국단위 경진대회 1위 입상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발 심사는 학업성적(수상실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에 지원 봉사 실적을 최대 1.5점 가산점으로 반영해 재단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재단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 조·부모 세대,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차상위 계층, 기타 생활형편이 곤란한 고등학생 중 13명에게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100만원 씩을 지급한다.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은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063-281-5082)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jhyou04@jinjae.kr)로 접수하면 되며,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여용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 전북은행 김영웅 청경, 익산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익산 고봉로지점에 근무중인 김영웅 청경이 지난 2월 23일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을 현금인출을 예방한 결정적 역할을 해 익산경찰서로부터 3일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영웅 청경은 지점을 방문한

3명의 가족고객이 필기대에서 카드사 대표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장시간 지체하는 것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통화를 마친 고객과 대화를 통해 ‘카드상환금액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이상을 느낀 김 청경은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로 판단해 고객에게 안내 후 신속하게 관할파출소에 신고해 현장에서 1,5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js.or.kr *전자우편 : jvjs@hanmail.net